

체코 공화국에서 빛을 비추다

교회 잡지, 편집: 사론 곳리치

우리는 체코 공화국에 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예요. 우리나라에서 빛을 비추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바닷가에 있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생겼어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대피소로 달려갔어요. 우리 중에 폭풍우로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무지개를 세 개나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야쿠프 비, 1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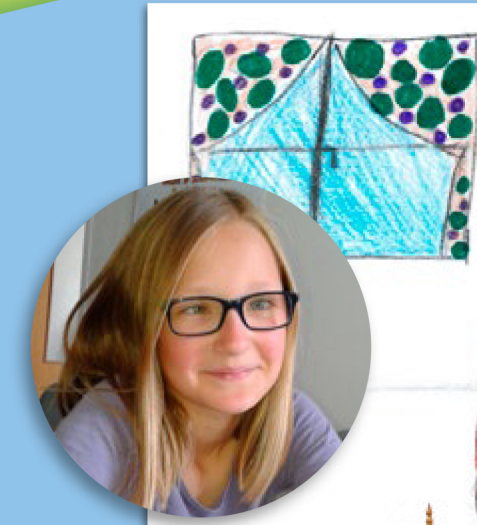
한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슬펐어요. 엄마와 저는 기도했지만, 장갑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 후에 제 남동생이 길거리에서 제 장갑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아요.
안드레 더블유, 9세



아무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학교 친구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자신이 못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친구에게는 저랑 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기뻐했어요!
루드밀라 브이, 8세



저는 목욕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싫어서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그다음 날 저는 제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슬펐어요. 엄마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분이 나아졌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 에이치, 5세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표준을 존중해주는 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기도하자고 말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했어요.
이바나 에이, 11세



교회에서 간증을 나눴어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쪽 영을 느끼고 있어요.
엘리스카 케이, 11세

저는 친구들과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다다랐을 때 저는 웬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자고 했어요. 친구들은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타겠다고 했어요.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제 친구들은 거기에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서 꼼짝하지 못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도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는 성신을 따랐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아말리에 엔, 10세

제가 키우는 기니피그가 아팠을 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네타 피, 10세



별을 보내 주세요!

별 모으기가 거의 다 끝나가요!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서둘러 여러분의 별 사진을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